

	<h2>보 도 자 료</h2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염병재난대응과</p>
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정안전부</p>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즉시 보도</p> <p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과 장 오준혁 (044-205-6150) 사무관 정양섭 (044-205-6156)</p>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난관리정책과</p> <p>과 장 김범석 (044-205-5110) 사무관 장영철 (044-205-5125)</p>

지자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특교세 150억 원 긴급 지원

- 백신 추가접종, 의료대응체계 확충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우선 활용 -

-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, 위중증 환자,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확산세 지속으로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재난안전 특교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지역별 여건과 방역조치에 필요한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17개 시·도, 226개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백신 추가접종,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관리, 방역점검 등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된다.
-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특교세 지원이 특별방역대책 현장에서 추가접종 조기 시행, 의료대응체계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신속하게 쓰여 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